

다산포럼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레미제라블’ 봤어요? 눈물이 나오.” “혁명은 오래 걸리는거군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축원보다 더 자주 듣는 영화감상 평이다. “저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술은 삶의 구원인 걸 보여주네요. 직업이 뭐든 우리는 예술과 함께하는 호모루덴스로 살아야 한다는 격려도 받았구요.” 그렇게 답하곤 한다. ‘레미제라블’은 여러 영화계의 상을 휩쓸며, 500만명 이상 관람한 역대 외국영화 톱 10에 들어섰다. 대선 직후 개봉한 덕인지 ‘힐링 영화 신드롬’까지 불러 일으켰다.

‘레미제라블’, 심장을 두드리는 예술의 힘!

영화를 보노라면 눈물이 난다. 판틴역의 앤 해서웨이 가 부르는 ‘나는 꿈을 꾸었죠’, 장발장의 휴 잭맨이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 짝사랑의 아픔을 노래하는 에포닌의 ‘나 혼자만 사랑’도 절절하다. 그 와중에 바리케이드 위에 올라 깃발을 휘날리는 청년들의 심장박동조차 느껴진다. 왜 그럴까? 한 세기가 더 지난 원작의 힘이 선베르크의 음악과 톰 후퍼의 카메라를 타고 지금 이곳 우리 가슴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실재를 담고 열정으로 일어난 제작자 카메론 메킨토쉬의 공력, 원작에 반해서 현장에서 직접 노래하는 배우들의 연기 후끈도 한 몫하고 있다. 오래 전 7월 14일, 파리 센강가에서 프랑스 혁명을 기리는 축제의 감흥이 전해온다. 불꽃이 음표처럼 밤하늘을 오르내리며 화려하게 피어나던 축제의 밤, “공립은 영혼과 정신을 낳고, 불행은 위대한 인물을 낳는다”라는 장엄한 위고의 소리가 불현듯 들려온다. 굵직한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그는 훗날

은식기에 은총대까지 얹어 선물로 준 주고의 사랑으로 거듭난다. 그 실천으로 양육비를 벌려고 온몸을 팔다 죽어간 판틴의 딸 코제트를 입양하며, 키우던 장발장은 혁명을 만난다. 노예 같은 궁핍한 삶을 청산하기 위한 거련한 이들의 열정은 혁명의 시대를 만들어 낸다. 영화를 보고난 후, 바리케이드에서 들려오던 노래가 귀에 쩡쩡하게 소용돌이친다. ‘들리는가, 사람들의 노랫소리까? (Do you hear the people sing?)’란 그 노래. “성난 사람의 노래가 들리는가? 그건 사람들의 음악이다. 다시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당신의 심장이 박동할 때, 드림의 두들김이 어우러지고 새로운 시작이 인생이 열린다.” 에필로그를 장식하는 노래는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술의 마력을 보여준다. 특히 마음을 저미는 감동은 인간관계로부터 나온다. 사회정의를 내건 법률이 가난한 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시대. 위고소 소설 서문에서 밝혔듯이, “가난하기에 남자는 나오되고,

굶주림으로 여자는 타락하고, 어둠 때문에 아이들이 빼돌어지는” 문제투성이 세상. 법이 있어도 비참함과 부정의함이 난무하기에 영화는 새로운 세상을 그려낸다. 그곳에선 살아갈 용기를 주는 관계의 미학이 희망을 꿈꾸게 만든다. (힘있는) 나이 든 남성(유약한) 어린 여성의 관계를 남성의 성적 판타지로 은밀하게 그려내는 작풍들이 퍼져있는 세상의 관습, 그런 관습을 깨고 등장하는 장발장과 코제트의 관계는 자유, 평등, 박애의 실천이다. 장발장에게 코제트의 양육과, 연인 마리우스를 살려내는 헌신은 엄마 관탄에 대한 사죄이다. 그것은 빈곤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하는 나눔의 실천이자, 살만한 세상 만들기 위해 참여하는 시민의식의 실천이다. 세계 경제불황의 늪에서 자연과과학 삶이 만연한 시대, 세계적인 자살률과 실업자가 넘쳐나는 사회, 복지문제도 세대 갈등까지 불거져 당혹스러운 사태. 이런 적막감 속에서 인간이 살고픈 세상을 꿈꾸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예술은 우리 삶의 동반자이다.

NGO 칼럼



박병주
행복심리상담개발원장

병든 마음의 치유

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그런 근심에 빠졌다는 것을 안 친구가 찾아가서 깨우쳐 준다. “하늘은 공기가 쌓여서 된 것이요 그리고 그 공기는 우리들이 움직일 때, 숨 쉴 때, 어디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어찌 하늘이 무너진다는 걱정을 하는가? 그 사람이 또 말하기를 “해와 달과 별들은 왜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했다. 깨우쳐주러 간 친구가 다시 설명했다. “해와 달과 별들은 공기가 쌓인 하늘에서 빛을 내는 것이므로 설사 떨어지더라도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네.” “그렇다면 땅이 꺼지던 어떡하는가?” “땅은 흙덩어리기 때문에 꺼질 염려가 없네. 우리들이 걷는 곳, 밟는 곳 어디를 가든 사방이 흙덩어리로 차 있지 않은가? 아침부터 밤까지 이 위를 걷고 앉고 하는데 어떻게 꺼질 수 있는가?” 그러자 걱정에 쌓여있던 남자가 비로소 안도감에 기뻐했다는 이야기이다. 이같이 쓸데없는 근심, 괜한 걱정을 가리켜서 ‘기우(杞憂)’라고 한다. 기우가 증증으로 나타나면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게 된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은 국민이 10년 새 70% 이상 급증했다는 것이다. 최근 1년 사이에 130만 명이 우울증을 7245만 명이 불안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부터 모든 국민이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요즘 주변에 이런 저런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사실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상처의 깊이와 형태만 다를 뿐이다. 마치 세상이 ‘서로 상처주기 전쟁터’ 같다. 성장과정에 내면의 세계에 쌓여있는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 몸부림치다가 그 고통이 인간관계를 파괴해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불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요즘은 치유가 대세다. 몇 년 전만 해도 웰빙(well-being)의 시대였다. 그때는 몸과 마음, 의식주뿐만 아니라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웰빙이었지만 오늘날은 힐링(healing)이 대세다. 힐링은 단지 병든 몸을 치료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 전반을 이끄는

코드가 되었다. 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다형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상처입은 분들에게 돌보고 치료하는 시스템도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사실 개인의 내적 상처는 단순히 개인이 불행에 그치지 않고 방치하면 사회 전체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사회 전반에서 인기 터지고 나오는 병자들을 목도하고 있다. 개인이나 사회 전반적인 치유를 정신의학, 심리학적 영역으로 한계로 정해서도 안 된다. 사회적 치유를 위해 대중매체와 학교와 각종 상담연구기관, 관, 종교와 함께 어우러져 동참해야한다. 분열과 대립, 단절과 소외의 아픔을 사랑으로 싸매고 나누며 섬기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행복심리상담개발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 정치적 상처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응서 화해를 위해서는 진정한 힐링(healing)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기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한다



진선기
광주시의원

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당 실무자 일각에서는 공천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 정당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 관측도 내놓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가 불려오는 폐해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어서 경북 영덕지역을 비롯한 각 시·군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지역 정치권의 지각 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북 영덕지역의 경우 새누리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는 지방선거 구도는 물론 지역 권력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거론하고 있는 개혁 방안이다. 2005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이후 정당공천제는 도입 이유로 내세웠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보다는 지방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측된다는 결과를 가져와 지방의회를 오히려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공천제 하에서는 지방 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유력 정치인에게 휘둘러 지역 주민들의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다 보니 ‘바람’에 영향을 받게 된다. 지역의 인재를 뽑기보다는 ‘정권 심판’ ‘야당 응징’ 등 정치 구호에 따라 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영남과 호남 등에서는 각각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의회 진출 자체가 어렵고,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 의원들이 다수당을 이루게 돼 견제와 균형이 존재할 여지가 없어지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확인된다. 2010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후보자의 정당공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 경북 지역 기초의원 65명 중 32.3%는 ‘지역 국회의원과 친분’, 15.4%는 ‘소속 정당 기여도’라고 답했다. 반면 ‘개인적 역량’은 6.2%,

“지역 발전 기여도”는 3.1%에 불과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011년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위탁해 실시한 조사에서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86.8%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는 소극적이다. 자기들의 심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새정부에서는 정당 공천제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도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제 국회의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국회에서는 말이 없다. 기초단체의원들은 연간 수천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이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의 정활동보다는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 활동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여·야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심정으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촉구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 자치체의 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빛더미 지자체 자치권 박탈하고 관선 단체장 파견해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심성 예산이나 방만한 지자체 운영으로 빛더미에 얽은 지자체의 경우 아예 자치권을 박탈하고 관선 단체장을 파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것을 건의한다. 대학도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면 교육부에서 관선 총장을 내려보내고, 기업도 관선으로 내려보내 관리감독케 하는 법정관리라는 제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런 곳보

다 더 강력한 관선 단체장 파견제도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당연히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공공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일전에 인천광역시는 직원들 월급도 못줘서 말린 적이 있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에서 해마다 지방재정을 거달한 단체장들을 빚대어 ‘말뼀진 독에 물복숭아’ 같은 걸 만들어 수여하겠는가.

지금 전국에 재정이 도산 위기에 몰린 지자체는 한둘이 아니다. 이런 지자체는 아예 직원을 월급 줄 돈도 없을 정도라는데 결국에는 그 많은 예산을 뭐로 해결하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비축해 둔 국가 재정으로 메워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지자체 파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재정 파탄을 선언하면 중앙정부가 떠맡아 국민 세금으로 메워줄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아는 지자체들은 단체장 당선만 되면 전신성 사업과 호화 청사 건축,

남비성 축제 행사에 수천억원씩을 허비하고 들었다. 그러나 앞으로 부실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공적자금을 받아간 부실 금융회사들처럼 부실 경영의 책임 소재부터 따지는 절차를 거쳐 관선 단체장을 파견해야 한다. 물론 전임 단체장은 자치권을 박탈해야 마땅하다. 이런 방언이 하루빨리 도입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낭비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강성주·광주시 동구 율림동

社說

실망·허탈감 넘어 분노로 변한 호남민심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호남’은 없었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첫 내각 후보자 18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사실상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민정부 이후 정부 첫 조각에서 호남 인사가 없다는 건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다. 18일 발표된 청와대 인선에서도 비서실장과 3명의 수석 중 영남 출신인 이남기 전 SBS 미디어유티빙 사장이 홍보 수석에 내정됐지만 홍보 특성상 지역별 전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주 임명된 김장수(광주)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역시 마찬가지다. 힘이 있는 자리인 허태열 비서실장과 광상도 민정수석 내정자는 모두가 영남 출신이다. 박 당선인의 대탕평인사를 굳게 믿었던 호남인들은 실망과 허탈감을 넘어 분노마저 일고 있다. 차라리 박 당선인이 “호남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 “대통령이 된다면 호남의 인제, 여러분 아들·딸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대탕평인사부터 펼칠 것”이

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호남에서 10%에 불과한 표를 주고서 기대를 한 자체가 ‘속 보이는’ 일일 수 있겠으나 국민대통합의 단초가 호남인재의 중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실책’로 귀결되는 것도 철저한 호남 홀대 때문이다. 남아 있는 각 부처 차관급 인사와 검찰·경찰·국세청장 등 17개 청, 청와대 후속 인선에서도 기대를 갖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여기에, 박 당선인의 호남에 대한 공약사항과 지역 현안예산 확보 등도 소외될 가능성도 크다. 이제 호남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호남권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모든 세력, 출향인사 등이 똘똘 뭉쳐 정부·여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그 지긋지긋한 소외와 홀대를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무등산 ‘담뱃불 화재’ 시민의식 이 정도인가

지난해 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에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 무등산이 큰 화상을 입었다. 사실 무등산은 국립공원 승격 후 등반객이 크게 늘어 상시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나 그 대비는 소홀했던 것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55분경 무등산 새인봉 인근에서 불이 나 소나무 등 0.5ha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본부에서 헬기 3대를 비롯해 소방관과 경찰 등 1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지만 산세가 가팔라 진화에 애를 먹으면서 큰 생체기를 남기고 말았다. 무등산은 광주 도심과 가까이 있어 평소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처나 다름 없는 곳이다. 이로 인해 주말과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등산객들로 넘쳐난다. 여기에, 무등산이 지난해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외지 등산객까지 찾아 북새통을 이룬다. 광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인파로 무등산 전체가 몸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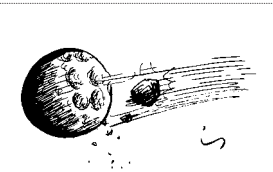
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소중한 무등산임에도 이를 보호하려는 시민들의 의식은 지극히 낮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부 등반객들은 한적한 곳을 찾아 취사행위를 하다가 하면 쓰레기도 함부로 버린다. 실제, 최근 3년간 무등산에서 취사행위 등 불법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27건에 이르며, 계고를 받은 사례도 108건이나 된다고 한다. 화재와 관련해 예방을 위한 감시와 대응 시스템이 미흡한 점도 문제다. 이번 불이 낮에 발생했는데도 산불감시인이 바로 발견하지 못했고, 사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아닌데도 2시간이나 걸려 진화됐다. 무등산은 우리 스스로가 보호하고 가꿔야 할 자원이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만큼 라이터 등 화기물품을 아예 소지하지 않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광주시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립공원에 걸맞는 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옛날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믿었던 것과 달리 달 표면이 매끈하거나, 평평하거나, 완벽한 구(球)모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인 1609년, 이탈리아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작한 천체망원경을 이용해 처음으로 달을 보고선 큰 충격을 받았다. 유리구슬처럼 둥글게 생겼을 것이라는 기존 관념과 달리 달은 분화구로 가득한 ‘곰보’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계속된 과학자들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달 분화구가 화산폭발과 연속된 운석충돌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미국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역저 ‘코스모스’에서 1만여개의 달 분화구가 10억년에 걸쳐 생겼을 경우 한 개의 분화구가 형성된 뒤 다음 차례의 분화구가 생기기까지는 10만년의 간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만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님에 1994년 슈메이커-레비9 혜성이 목성과 충돌한 사건에서도 증명된다. 또 6500만년전 한때 지구상에서 군림하던

높이에서 폭발하며 큰 피해를 입혔다. 지난 1월초에는 직경 270m 규모의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 궤를 지나가기도 했다. 지구가 소행성 등 우주물체와 충돌한다는 ‘딥 임팩트’(deep impact)가 더 이상 공상 과학(SF)영화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다. 앞으로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뿔뿔(유성)을 보게 되면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무릎 높이의 ‘화산 세계와 잠미 한 송이뿐인 소행성 B 612’ 대신 지구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더욱 피부에 와닿을 듯싶다. /송기춘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사 조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